

# 히비도우레 비치 파크



글 VEGA landskab

**Project Team**

Landscape Architect: VEGA landskab

Sculptor: Karin Lorentzen

Client Hvidovre Municipality

Location Hvidovre, Denmark

Area 1,900m<sup>2</sup>

Design 2014

Completion 2017

Photographs Naja Visc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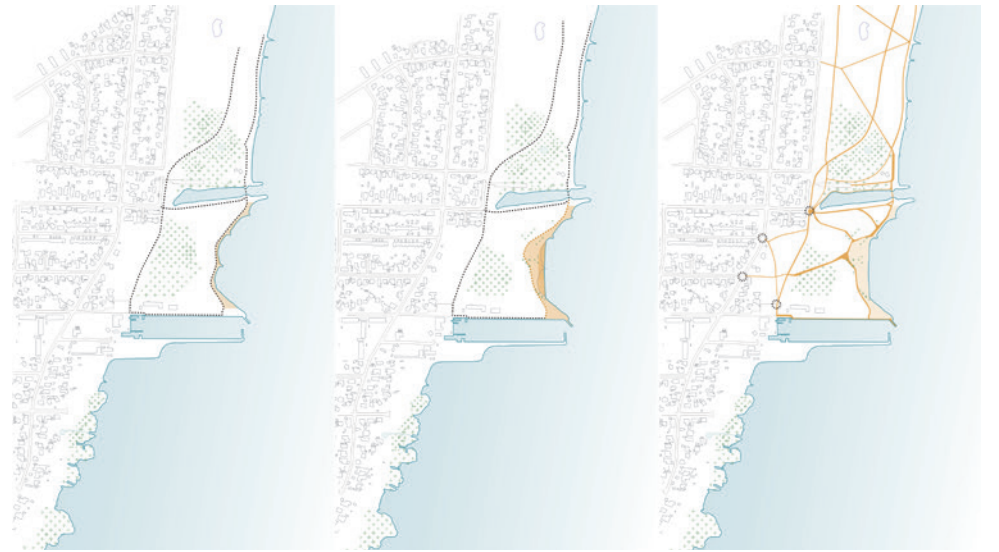
베가 란스카브(VEGA landskab)는 안네 도르테 베스테르그(Anne Dorthe Vestergaard)와 안네 갈마(Anne Galmar)가 2013년에 설립한 조경설계사무소로, 덴마크 코펜하겐과 오르후스(Aarhus)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조경, 도시계획, 시설물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친환경적이고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다양한 스케일의 외부 공간을 조성하고자 노력해 왔다. 경관은 아름다운 풍경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인간 삶을 수용하고 활기차게 만드는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믿는다.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해 지속가능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모든 프로젝트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해안선을 따라 모래사장을 확장하고  
동선과 해안 경계를 정비했다.



**매립지 인공 해변**

코펜하겐 외곽의 작은 도시 흐비도우레 Hvidovre의 해변은 쓰레기장을 매립하면서 만들어진 인공 해변이다. 자전거나 대중교통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가족 단위의 방문객이 점차 늘어나면서 지역의 인기 여행지로 손꼽히게 되었다. 하지만 해수의 흐름에 따라 해변가에 해초가 과도하게 쌓이는 문제가 일어났으며, 모래가 침식되면서 매립된 쓰레기가 노출되고 오염 물질이 바다로 유출되기 시작했다. 이에 흐비도우레 시 정부는 해변 환경을 개선하고 확장하는 '흐비도우레 비치 파크 Hvidovre Beach Park' 프로젝트를 계획했다. 이를 통해 흐비도우레 항만과 작은 뫼르텔렌덴 Mørtelrenden 수로 사이의 모래사장이 해안선을 따라 연장되고, 매립지 해변은 이색적인 경관을 자랑하는 해변 공원으로 변모했다.



해안 경계를 따라 난  
기존 동선

모래사장을 확장하고  
북쪽과 남쪽을 잇는 새로운 동선 마련

해변으로의 연결성  
증대

흐비도우레 해변은 과거 쓰레기장을 매립하면서 만들어진 인공 해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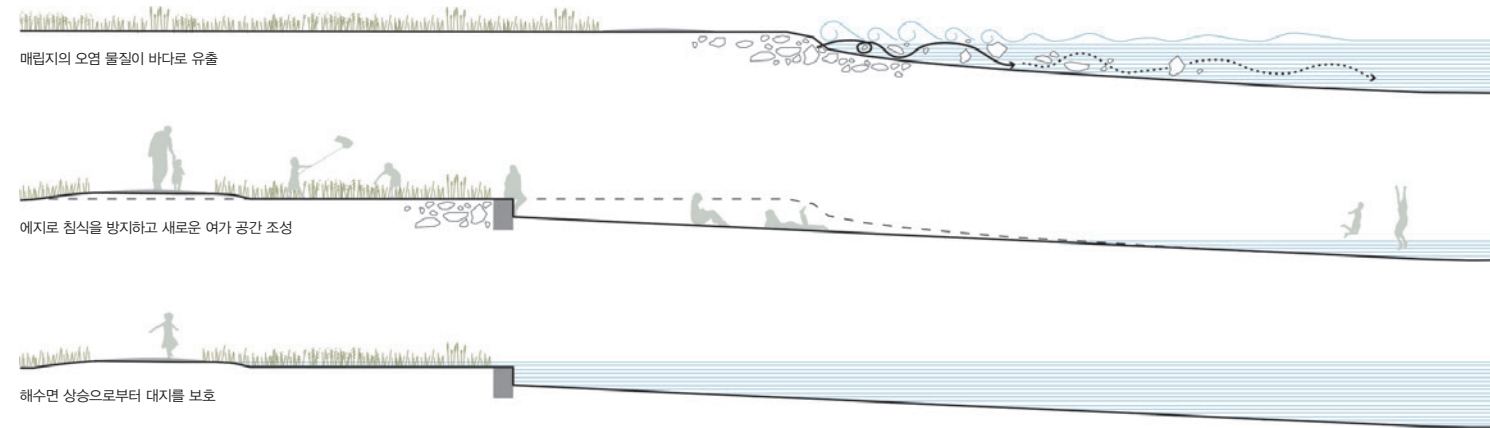
### 조경가와 예술가의 협업

프로젝트는 조경과 예술의 협업으로 진행됐다. 조경가는 새로운 지형과 동선을 구축하고 콘크리트 에지의 기반을 조성했다. 조각가 카린 Karin은 콘크리트 에지의 형태와 세부 요소를 구상하고 에지의 현장 설치를 맡았다. 설계 초기 단계부터 조경가와 예술가가 함께 작업했기 때문에, 새롭게 조성된 경관과 콘크리트 조형물이 조화를 이룰 수 있었다.

### 전략

해안가를 따라 새로운 동선을 마련하고 모래사장의 면적을 넓혔다. 확장된 모래사장은 해초 축적과 모래 침식을 피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사와 방향으로 계획됐다. 모래사장과의 초기 경계에 놓인 콘크리트 에지는 토양 침식을 방지하고, 조형성이 돋보이는 독특한 가장자리를 연출한다. 뿐만 아니라 해수면 상승에 대한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경계부를 설계하여 일상적인 수위 변동은 물론 기상 이변으로 인한 급격한 수위 상승에도 견딜 수 있게 했다.

해수면 상승에 대한 예측 결과를 토대로 설계를 진행해 일상적인 수위 변동은 물론 기상 이변으로 인한 급격한 수위 상승에도 견딜 수 있게 했다.



조형성이 돋보이는 콘크리트 에지



설계 초기 단계부터 조경가와 예술가가 협업하여 경관과 시설물의 조화를 꾀했다.



매립지 인공 해변이 이색적인 경관을 자랑하는  
해변 공원으로 변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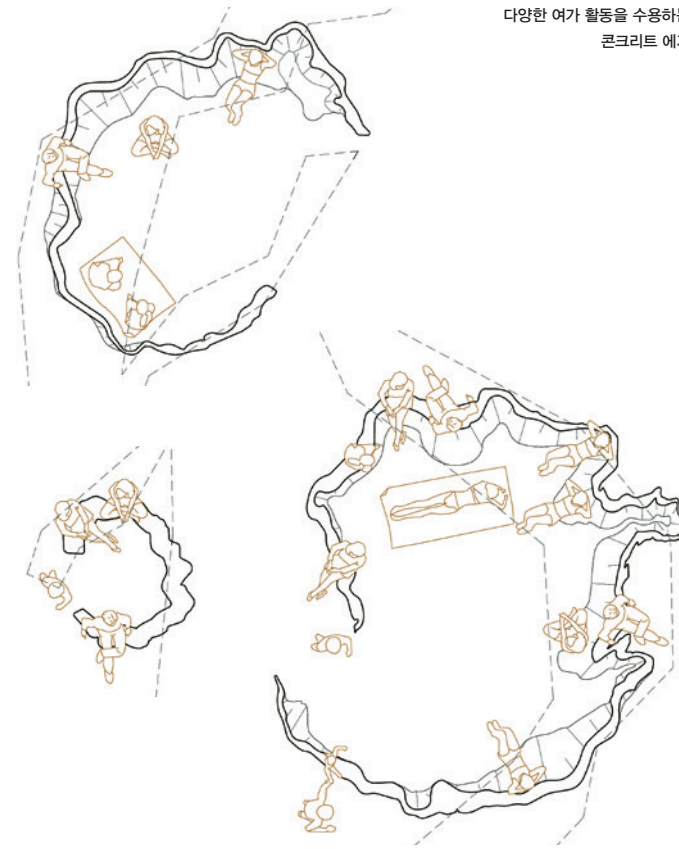
**콘크리트 에지**

콘크리트 에지는 흙을 지탱하는 지지대일 뿐 아니라 앉기 좋은 높이의 의자, 커다란 발판으로 기능하면서 다양한 여가 활동을 수용한다. 구불구불한 형태가 아이들의 흥미를 자극해 놀이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기능적이면서도 심미적인 에지 덕분에 해변도우레 비치 파크는 바다, 모래사장, 초지를 하나로 아우르면서 독특한 장소성을 가지게 되었다.

번역 신명진 진행 윤정훈 디자인 팽선민



콘크리트 에지는 토양을 지탱하면서 벤치의 기능을 겸한다.



다양한 여가 활동을 수용하는 콘크리트 에지

기능적이면서도 심미적인 에지는 바다, 모래사장, 초지를 하나로 아우르면서 대상지에 독특한 장소성을 부여한다.



**RAUMHAUS\***  
ENVIRONMENT & PUBLIC DESIGN CLUSTER 라움하우스



www.raumhaus.co.kr  
라움하우스 | 서울시 마포구 연희로 21 동광빌딩6층  
T. 02. 334. 0426 F. 02. 334. 0427 E-mail. raumhaus@naver.com